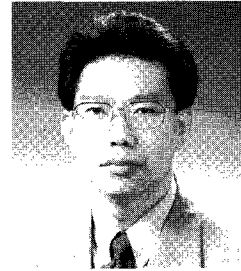


미국에서의 항생제 사용 현황(I)



송 덕 진
로슈비타민코리아 이사

세 계 최대 가금육 생산국인 미국은 성장 촉진 및 치료목적용 항생제 사용 기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료용 항생제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 속한다.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한 엄격한 통제는 약제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게 하고, 양계 생산 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약제 사용을 해오고 있다.

표1. 1997년도 미국 동물약품 판매 현황

제 품	총 판매금액	양계용 약제	%
사료첨가제	620백만\$	175백만\$	28.2
생물학적 제제	541백만\$	*80백만\$	14.8
치료용 약제	2,509백만\$	36백만\$	1.4
계	3,670백만\$	292백만\$	7.9

*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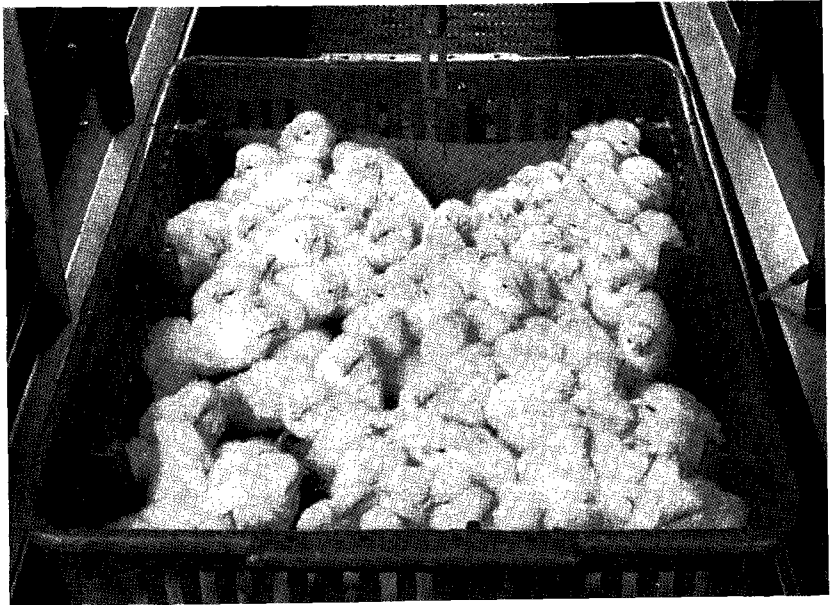
미국 동물약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도 사료첨가제, 생물학적 제제, 치료용 약제의 판매 실적은 36억7천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에서 보듯이 칠면조를 포함한 가금류에 사용된 항 콕시듐제 및 성장촉진제는 전체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중에 28%를, 생독 및 사독 백신류의 생물학적 제제는 14.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반면 치료용 약제는 1.4%로 그만큼 치료용 약제의 사용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양계 산업에서는 사료첨가제와 백신으로 질병의 예방관리에 더 치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계용 사료첨가제의 약 4%는 징크바시트라신(zinc bacitracin), 버지니아마이신(virginiamycin), 밤버마이신(bambermycin) 등 성장촉진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치료용 약제는 일일령 병아리에 사용되는 현탁형 항생제, 치료 목적용 항콕시딕제, 파수튜렐라(pasteurellosis) 치료제 및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류와 종계에서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를 치유하기 위한 약제들이 있다.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s)은 1996년도에 허가가 났으나 수의사의 처방과 엄격한 통제하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소비자들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민감한 편은 아니다.

FDA의 수의약품 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of the FDA)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항생제의 사용”이란 주제의 학술모임을 주관한 적이 있다.

1980년 National Academy of Science는 가축에 사용되는 성장 촉진용 항생제가 인간의 건강에 해를 준다고 불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졌다.

공익 옹호단체인 National Resource Defence Council Inc.는 가축사료에 페니실린(penicillin) 및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의 저용량 사용 허가를 철회 해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했었으나 그럴만한 절박한 위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

약제내성균의 위험성에 대한 기술적 증거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학계, 일반인체 약품업계의 의견 수렴결과 이 청원은 기각되었다.

1988년도에 National Academy of Science는 성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테트라사이클린과 페니실린 사용에 대해 약제 내성균의 위험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들 약제의 가축에 사용은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으며, 인간과 가축에 일반적인 병원균에 대해서도 약제내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미국에서는 GRAS(generally regarded as safe)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성분들은 식, 의약품 및 화장품 법에 의해 약으로 분류된다. FDA는 모든 약제의 제조시설, 라벨(labeling), 판매, 부작용 모니터, 내성, 잔류 등에 대해 허가권과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양계**